

“DMZ 공중정원, 지뢰 피하러 3~6m 띄워 설치”

30 May, 2016 | 한은화 기자

“DMZ 공중정원, 지뢰 피하러 3~6m 띄워 설치”

한·일 작가 협업 최재은과 반 시계루
“힘 상징 콘크리트 보다 대나무 적합
실현 가능한 프로젝트, 이제 출발선”

한반도 허리를 선 3개가 가르고 있다. 군사
분계선, 비무장 지대(DMZ)의 남-북 경계선
이다. 설치 미술가 최재은(63)은 DMZ의 남
북을 잇는 보행로를 설치하고 싶었다. 그렇
게 시작된 ‘꿈의 정원’ 공중정원 프로젝트가
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초
청받아 전시됐다. 한국 작가로 유일하다.

프로젝트의 전체 구상은 최 작가가, 건축
물의 설계는 2014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
일본 건축가 반 시계루가 맡았다. 두 사람은
20년지기 친구라고 했다. 반은 “2001년 평
양을 방문한 적 있어 분단 상황에 대해 잘
알고 있었다”며 “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
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
해 제안에 선뜻 응했다”고 말했다.

두 사람이 구상한 보행로의 총 길이는 13
km다. DMZ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
뢰를 피하기 위해 지면에서 3~6m 가량 띄
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. 실제 보행로를 10

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 전시장에 설치됐다.
재료는 대나무다. 빨리 자라고 튼튼한 대나
무를 DMZ에 심고, 이를 다리 삼아 대나무
로 만든 보행로를 걸친다는 구상이다. 최 작
가는 “DMZ 내에 대나무를 심기 위해 현재
담양의 대나무를 수원에 옮겨 심어 기후에
잘 적응하는 지 본 후 철원 지역으로 한 번
더 이식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반은 “구조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실
현 가능한 프로젝트”라고 설명했다. 그는
“DMZ에는 힘을 상징하는 콘크리트 구조물

대신 자연을 상징하는 대나무가 잘 어울린
다”며 “통일도 힘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해
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”고 덧붙였다.

최 작가는 “프로젝트 현실화를 생각하면
이제 출발선에 섰다”고 했다. 그는 기획안을
지난해 통일부에 제출했고, 올초 UN에
제출하기도 했다. 하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
했다.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반 시계루
가 최 작가에게 말하며 약속을 권했다.

“계속 걸어갑시다(Keep walking).”

베니스=한은화 기자



‘DMZ 공중정원’ 프로젝트의 최재은 작가와 반 시계루, 전시 총감독 알레한드로 이라베나(앞줄 왼쪽부터).